

News

파월 "정부정책에 경제 앞날 달려"...므누신 "7월까지 추가부양"

연합뉴스

파월 Fed의장, "경제의 앞날이 매우 불확실하다...바이러스 역제의 성공 여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것...2분기 미국 GDP 감소가 사상 최대 규모 가능성..."
또 필요한 동안 구호 제공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조치들에 경제의 앞날이 달려있어...어떠한 형태의 부양책도 너무 일찍 거둬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

코로나 대출 100조...8월부터 속속 만기

매일경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이후 6월 26일까지 코로나19 금융 지원 중 대출 만기 연장은 모두 56조8,000억원, 신규 대출은 57조2,000억원 규모
A은행, 오는 8~10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늘어...금융위, 9월까지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

금융당국 이달 중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최대 70조 더 풀린다

조선비즈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출(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낮춰...
금융위, 이달 중 자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출 규제를 완화...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최대 7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금감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파이낸셜뉴스

6월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우리금융에 관련 공문을 발송
외감 법인 및 신용카드 부문은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 및 운영의 안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해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향후 보완 후 심사 재개 예정

데이터 개방 확대...보험·금융결제 정보 활용도 높인다

연합뉴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크레디비)을 통해 보험 표본 DB(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제공
보험 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비식별 처리된 보험 가입·해지, 담보 내용 등...보험 정보를 활용하면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개발 가능

또 다른 '적자뇌관' 실손보험...가입 기준 높이기 나선 보험사

이데일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문턱을 높이는 중...신규 가입연령을 제한하거나, 가입 전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요구하는 등 인수심사를 강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영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하향 조정...롯데손보는 만 21세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방문진단심사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자에 JC파트너스 선정

이데일리

JC파트너스는 지난 2월 KDB생명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해 매수실사 등을 완료한 이후 지난 22일 마감된 최종 본입찰에도 단독 참여
입찰은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운용사를 맡고 있는 펀드가 보유한 KDB생명 지분 92.73%(8,800만주)를 경영권을 함께 넘기는 것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12월29일까지 영업 정지 의결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30일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결정...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경영업, 부수업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가 중단...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일부 업무는 허용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